

대통령도 주목한 '강진 반값여행'...청년 여행경비 쏜다

10일 문체부·관광공사와 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 시행 최대 70% 지원...이달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운영

대통령도 주목하고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반값여행 원조 1번지 강진군이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지원한다.

4일 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로 주목받은 강진 반값여행이 국가사업으로 확장된 가운데 강진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 운영에 나선 것이다.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운영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 관광객 특별지원

을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끈다.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992년 4월 1일~2007년 4월 1일 출생자)이 혼자 강진을 여행할 경우 총 3만원 이상 소비 때 사용 금액의 70%, 최대 14만원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강진 반값여행과 동일하게 일반 관광객은 사용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 가맹점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신청대표자가 구매한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거래내역만 인정되며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숙박업소 이용금액은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도 인정된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광 소비가 실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관광 활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방문해 여행을 즐기는 모습. 사진제공=강진군청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강진형 상생 관광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관광객은 강진군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1회 참여할 수 있다.

기존 '2026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이용한 관광객도 이번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026 강진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지침

에 따라 강진군 인접 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강진이 시작한 반값여행 정책이 지역관광 활성화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이번 '2026 강진 반값여행'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고, 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도시 강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광양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9월까지 체납사유 확인 등 진행

광양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 사유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납세자의 상황을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반면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의 안내나 방문 상담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체납 정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jin@gwangnam.co.kr

화순, 작물 병해 신속 진단 영농서비스 제공

5분만에 결과 확인...피해 예방·적기 방제 기대

화순군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 병해 신속 진단 영농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진딧물과 총채벌레, 가루이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병해 발생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현장 진단이 중요하다고 판단, 병해 발생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진단키트를 활용한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키트는 현장에서 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원인을 신속

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진단 대상은 토마토, 고추, 오이 등 가지과와 박과 작물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TSWV·CMV·TYLCV 등)를 비롯해 풋마름병, 탄저병, 역병, 시들음병 등이다. 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는 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61-379-5422~4) 또는 지역 농업인 상담소로 문의하면 현장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방제 방법과 적용 약제 사용 요령 등 현장 기술 지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순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



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고추와 토마토 등 주요 원예작물의 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병해는 조기 진단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인 만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나주, 장난감도서관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

8일부터 장난감 637종·1926점 정보 실시간 제공

나주시가 장난감 검색부터 온라인 예약, 놀이체험실 신청까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영유아 가정의 육아 편의를 높이고 양육 문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장난감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나주시 장난감도서관 전용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27일 빛가람꿈자람센터 2층에 개관한 나주시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장난감 637종 1926점과 다양한 육아용품을 대여하며 지역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회원 수 1000명을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장난감도서관 누적 이용자는 1만125명, 놀이체험실 이용자는 4835명에

달하는 등 지역 대표 육아 지원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한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장난감 보유 현황과 인기 장난감 검색, 온라인 예약 및 대여 신청, 놀이체험실 예약, 운영시간 및 이용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도서관은 개인 연회비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놀이체험실은 1인당 1000원의 이용료로 운영하고 있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계기로 비대면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육아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나주=조현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초대석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현장 화합사과 반박
'예방 중심 체계' 전환 시급

지금 이사함



김진숙 대한민국 미용명장 1호
머리카락으로 피워낸 예술
반세기 지나 예술이 되다

전남농업이야기



오상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곤충이 미래 먹거리"
전남, 밀월 산업화 시동건다

남도 예술인



조혜수 배우
"광주 이야기 현재로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

2026.06 vol. 157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계도
다도해 호령 '달개섬',
백척간두 벼랑 끝에서 만나다

여기가 명상·치유할 곳



영도 산중사
청정바다가 보이는 마음일터
'치유의 사찰'

커버스토리

이인곤
광산이씨 도문중 총회장

"필문 이선제 선생,
조선 단종 스승이자
광주 빛낸 대표적 인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재조명...
고려사·태종실록 편찬 참여
광주목 복권 앞장·광주향약 창안...
호남 대표 사림 '우목'